



유통업계  
자본정책 대전환  
주주환원 속도  
나



Life

동물실험 대체  
정책·투자 속속  
실행단계 전환  
L2



# 발로 뛰는 '농정 전문가'... 기후 파고 넘어 K-푸드 영토 확장

## CEO 와칭

###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업 현장이 기후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다.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수급 불안은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고착됐다. 재배 적지가 사라지고, 농가는 밭을 버리고, 소비자 먹거리가 불안정한 악순환이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국내에서도 시급하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된다. 지난 2024년 8월 '농업 전문가' 홍문표 전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부임했다.

의원직 4선을 지낸 홍 사장은 임기 도합 16년의 대부분(14년간)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08~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한 '현장형 농정 전문가'다. 의정활동 기간 농기계 임대법을 비롯해 면세유 5년 연장법 등 농어민 소득에 직결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aT를 이끄는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확보'를 거듭 강조한다. 이와 연계해, 신제품 개발과 K-푸드 수출 확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취임직후 TF 가동

홍문표 체제하에서 aT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면 가동되고 있다. 홍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돌며 위기의 무게를 확인했다. 이어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발족했다. 당시 그는

#### 홍문표 aT 사장 프로필

충남 홍성 태생  
건국대 농화학 학사  
한양대 사회복지정책 석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現)
-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
- 국회 농해수위,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 국회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 국회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 국회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하키연맹 수석부회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aT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해 8월26일 강원도 정선 소재 '배추 신품종' 재배현장에서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있다. /aT

#### 현장 경험 풍부한 '농업정책 전문가' 의원 임기 대부분 농수산 현장에 헌신

#### 부임 한 달 만에 기후변화 대응팀 꾸려 연구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체계화 기후변수 뚫고, 식량 안보 확보 앞장

"현장에서 기후문제를 매일 맞닥뜨리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만 믿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TF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난해 2월에는 TF를 '기후변화대응부'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한 계단 더 끌어올렸다. TF에서 부(部)로, 다시 부에서 처(處)로 조직 위상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aT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게 했다. 연구부터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

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홍 사장은 지난해 8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 "식량이 곧 무기인 시대에 식량안보 위기는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7대 혁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 ◆농업 현장이 곧 세계시장의 기반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숙제가 됐다. 세계 시장에 나갈 대한민국 농산물이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K-푸드 수출의 뿌리는 결국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일 터. 홍 사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그토록 속도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업 기반이 흔들리면 수출의 근간도 함께 무너진다. 홍 사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확대를 하나의 연결된 전략으로 가동했다.

그 위에서 숫자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은 135억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화로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농식품 단독으로도 역대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딸기·포도 등 대표 신선식품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한우의 경우 중동 지역(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새 시장을 열었다. 익산농협의 생크림 찹쌀떡이 대·중소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완판되는 사례도 나왔다. 품목의 다양화와 시장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일상의 식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한우의 UAE 첫 수출은 쉽게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었다. aT 두바이지사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에 착수했고, 국내 도축장의 할랄 인증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했다.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황성 소재 도축장이 UAE 정부의 할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같은 해 6월 두바이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는 할랄 한우 런칭쇼를 개최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9월에는 도축장 최종 등록 승인까지 마쳤다. 이후 10월 냉장·냉동 한우고기가 인천공항과 함만을 통해 UAE행 선적을 개시했다.

홍 사장은 이 흐름을 이어 다음 목표로 인구 2억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해 농수산식품 136억 달러 수출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역대최대

#### 중동지역에 한우 진출해 새 시장 열어 할랄 도축장 인증... 제도적 기반 마련

#### 온라인 도매 등 투명한 유통구조 조성 K-푸드 수출지원... 전략품목 육성도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aT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동시에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농민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는 '글로벌 NEXT(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권역별 전략 품목을 발굴하고, 민간 기업의 히트 상품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에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통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한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인증·검역 등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 혁신방향이 aT 조직에 뿌리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력이 높아져야 농업 기반이 유지되고 그 위에서 K-푸드의 세계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형보다 현장, 구호보다는 실행에 무게를 둔 행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족한 '기후위기 대응 수급 전담반'



지난해 6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할랄한우 현지 입점 기념행사.



▲레알 마드리드, 음바페 무릎 오진 논란...“사실 아냐”  
▲‘파이터’ 카스트로프, 뮌헨글라트바흐 이달의 선수...올 시즌 2번째 /사진 뉴시스

▲맨유, 10만 석 ‘뉴 올드 트래포드’ 가시화... 2035년 월드컵 유치 노린다  
▲‘전설’ 차범근 넘는다...손흥민, 한국 A매치 최다골 대기록까지 ‘-4’

▲‘미국 전쟁’ 이란, 북중미 월드컵 준비 계속...튀르키예에서 구슬담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 ‘첫 상대’는 누구...유럽 PO 27일 시작